

민주-혁통 '통합협의' 일단 순항

지도부 선출방식·당명 등 실무협상 주력

원의위원장 전대 무효訴 제기 귀추 주목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간의 통합 실무협상이 속도를 내며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원외위원들이 서울 남부지법에 임시 전당대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주 내외에 이뤄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야권 통합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지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시민통합당과의 실무 협상은 순조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당 간의 실무협상은 통합수입기관 첫 회의를 열린 지난 13일 저녁부터 당헌반과 총괄반, 강령반 등 3개 분과별로 시작됐다. 특히, 지도부 선출 방식 등 민감한 사안을 반영하는 당헌반의 경우 14일 새벽 3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등 통합 일정표를 맞추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당헌반에 참여 중인 시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당헌은 문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이미 통합당의 약칭을 '민주당'으로 합의한 가운데 구체적인 당명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시민통합당 홈페이지 상에서는 민주

진보당, 시민민주당, 민주통합당, 혁신민주당 등의 당명 후보를 놓고 투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 빠르면 16일 통합 수입기관회의를 통해 통합 결의를 하고 주말에 연석회의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완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의 통합안에 반대해왔던 일부 원외위원들은 14일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의 야권통합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찬선(서초 갑) 민주당 원외의 지역위원장 등은 이날 "야권 통합의 대의에 모든 당원이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지난 11일 임시 전당대회 당시 결의는 대법원 관례에 반하는 하자 있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14일 오전 민주당 박찬선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원외 위원장들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전당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있다. /연협뉴스

의 통합 결의 찬반 투표에 대의원 1만 562명 중 55% 가량의 5820명이 입장했지만 실제 투표에는 전체 대의원의 48%인 5067명만이 참여, 과반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 위원장 등의 주장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1일 임시 전대'의 효력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총선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통합정당 출범도 심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지권은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외에서는 임시 전당대회에서의 결정 과정이 일정 부분 하자

가 있는 만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거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 시점과 관련, 정지권에서는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사례 등을 감안할 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웅섭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와 별개로 통합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세환, 호남 첫 총선 불출마 선언

"야권통합 소망 득권 포기"... 물갈이론 점화 관심

3선의 정장선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호남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장세환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이 불출마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민주당 내에 호남 물갈이론이 점화될 조짐이다.

특히 장 의원이 초선인데도 불구, 희생과 득권 포기를 선택함에 따라 대선 의원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불출마 선언이 연재 시작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관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득권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호남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장세환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이 불출마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민주당 내에 호남 물갈이론이 점화될 조짐이다."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지난 12일 정장선(경기도 평택을) 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며 호남 지역구 중에서는 첫 번째다.

호남 의원 중 중진인 정세균 최고위원과 김효석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 승부처라고 판단,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문제는 호남, 특히 광주·전남에서 감동의 득권 포기가 이어지느냐 여부. 당내에서는 19대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대대적 인적 쇄신, 특히 호남에서의 정치권 물갈이가 화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호남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정지역 물갈이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호남지역 의원들은 호남은 총선 때마다 교체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인위적 물갈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 4월11일 치러질 제19대 총선이 지난 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남 후보 등록을 마친 양형일(광주 동구)·김명진(광주 남구) 예비후보가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과 상가, 경로당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근혜 "재창당 뛰어넘는 당 변화 노력"

쇄신과 회동... '소통' 차원 오늘 의총 참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쇄신과가 14일 회동하고 재창당을 뛰어넘는 당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박 전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 쇄신과 7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회동 후 박 전 대표와 쇄신과 의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태근, 김성식 의원의 탈당까지 불려온 한나라당 '재창당 논란' 사태는 수습의 길을 찾게됐고, 박 전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해 내년 4월 총

선대비를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쇄신과" 그 분들의 답을 위한 총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어쨌든 창당을 뛰어넘는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는 회동이 만족스러웠느냐는 물음에는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탈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황영철 의원도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재창당을 뛰어넘

는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며 "쇄신과 의원들은 박 전 대표와 우리의 의견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오늘의 자리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재창당 논란 등 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오전 열린 예정인 의원총회에 '소통'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전 대표의 의총 참석은 2007년 5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이래 4년7개월만이다.

/이종철기자 golee@kwangju.co.kr

박세일 "2월말 창당"

후보 200명 이상 출마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4일 내년 초 가칭 '국민대통합 선진통일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선진통일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10일 선진통일당 발기인대회를 하고 2월말까지 중앙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3월부터 총선 준비체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에 200명 이상의 후보를 내서 원내교섭단체 요건(20석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16년 지킴이' 김재두씨 출판기념회

18일 곡성레저문화센터... 박원순 등 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

19대 총선에서 담양·곡성·구례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김재두 <사진>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이 오는 18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섬진강 연가'라는 기행수필집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공채1기로 당료의 길을 시작한 그는 한화갑, 박상천, 정경환 등 5명의 원내총무를 보좌하며 여야 간의 대

치 상황에서 '방탄국회'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원내 전략가로 활동했다.

2002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그는 이후 6년 동안,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분당, 통합 등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첨병 역할을 묵묵히 수행, 호평을 받았다.

그는 현재 민주당 40대 정치 신인들이 주축인 '혁신과 통합을 위

한 새정치 모임'의 대변인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정동영·전정배 최고위원, 박지원·박상천·김부겸·이종걸·박영선 의원,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정경환 전 원내총무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예약접수 중 =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 개강: 1월 2일

공무원 합격실명회

일시: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좌석관계로 예약자선착순입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경력단절

당일 이벤트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무료증정
종합반 교재 5권 무료추첨 5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대한민국 대표 고시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www.hanbitgosi.co.kr